

# 멕시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2.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6
IV. 국제신인도 .....	8
V. 종합의견 .....	10

## I. 일반개황

면적	1,964천 km <sup>2</sup>	GDP	11,629억 달러 ('14)
인구	123.8백만 명 ('14)	1인당 GDP	9,393 달러 ('14)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Peso(Ps)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주의	환율(달러당)	14.72

- 멕시코는 한반도의 약 9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와 석유, 은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GDP 기준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제2의 경제대국임.
- 2012년 12월 취임한 니에토 대통령은 조세, 에너지, 통신 산업 등의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전반에 만연한 마약 관련 범죄로 치안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멕시코는 NAFTA 회원국으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2014년 기준 미국의 총 수출 중 14.8%, 총 수입의 12.5%를 차지하는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 소폭 개선 추정

- 2009년 멕시코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제조업 수출 회복 및 소비자 심리 개선에 힘입어 2010년에 5.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회복에 성공하였음.
- 이후 완만한 경제회복세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대형 건설사의 부도 위기,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및 공공부문의 인프라 투자 집행 지연 등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 및 제조업 성장률 하락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1.0%까지 축소되었음.
- 2014년에는 자국통화 약세 및 미국 경제회복에 따른 자동차 부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 증가 및 주거 건설 투자 회복으로 건설경기도 회복 중에 있음.

#### □ 기준금리 동결 조치로 소비자물가상승률 관리

- 멕시코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4%의 목표구간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2014년 7~12월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목표 상한선인 4%를 초과하였으며, 중앙은행은 추가 물가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2014년 6월 기준금리 인하(3.5%→3.0%) 이후 지속적으로 동결 입장을 취하고 있음.

#### □ 재정수입 감소 및 지속되는 인프라 지출 등으로 재정적자 확대

- 취약한 세수기반, 국제 유가하락 추세 속 높은 원유 세입의존도 등으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연금과 사회복지 지출 증가, 연료보조금 지급 등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2013년 6월 발표한 3,150억 달러 규모(2013년 GDP의 약 25%)의 2013~18년 인프라 투자계획 집행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계속 확대되어 2014년에는 4.2%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sup>e</sup>
경제성장률	5.2	3.9	4.0	1.0	3.0
재정수지 / GDP	-4.3	-3.3	-3.7	-3.8	-4.2
소비자물가상승률	4.2	3.4	4.1	3.8	4.0

자료: IMF, EIU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높은 대미 경제의존도 지속

- 2013년 기준 멕시코 수출의 77.2%, 수입의 49.3%가 최대 교역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 및 수입이며, 미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는 등 대미 경제 의존도가 높음.
- 멕시코 정부는 EU,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대미의존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원유수출 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 원유가 멕시코 재정수입의 1/3에 달하는 등 원유에 대한 재정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수출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멕시코는 원유수출 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높은 원유 세입의존도를 감안하여 멕시코 정부는 연간 헤지프로그램(수출물량에 대해 풋옵션 계약 매수)을 통해 유가 하락위험을 일정부분 관리하고 있어, 유가하락에 따른 대규모 재정위기의 가능성은 낮아 보임.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부존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 보유

- 멕시코는 아연(매장량 세계 4위), 셰일가스(6위), 동(5위), 은(6위) 등의 부존자원이 풍부하며 석유생산량은 세계 9위(중남미 1위), 천연가스 생산량은 세계 15위(중남미 1위) 수준임.
- 또한, 멕시코는 GDP 1조 달러 이상, 인구 1억 이상인 경제대국이며, 15~64세 인구가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구조 및 높은 인구 증가율을 감안할 때 내수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NAFTA 회원국으로 미국시장 접근에 유리

- 멕시코는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에 면해 있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미국과 3,326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또한, NAFTA 회원국으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2014년 기준 미국의 총 수출 중 14.8%, 수입의 12.5%를 차지하는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임.

다. 정책성과

□ 에너지, 조세, 통신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적극적 개혁정책 추진

- 멕시코 정부는 세수확대를 위한 조세개혁법(2013.11월), 에너지 부문 민간 개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개혁법(2013.12월) 및 외국인 투자 지분 비율을 확대하는 방송통신개혁법(2014.7월)의 제정을 통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전반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11월 멕시코 의회는 세수확보 및 공평과세 추진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주식처분소득 및 주주배당금에 대한 세금 신설, 탄소세 신설 등을 포괄하는 조세개혁법을 의결함. 개혁안을 통해 멕시코 정부는 2018년까지 GDP의 2.7% 규모의 세수확대를 목표로 설정함.
- 에너지 산업의 경우 1938년 국유화 시행 이후 멕시코석유공사(PEMEX)와

멕시코전력청(CFE)이 원유 탐사 및 발전과 관련한 독점적 위치를 누렸으나, 금번 에너지 개혁을 통해 에너지 분야를 민간에 개방해 석유 탐사 및 시추, 발전 분야에서 민간 기업과 경쟁하게 됨.

- 2014년 12월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개혁법 추진의 일환으로 멕시코만 남부 연해의 광구 14개에 대한 입찰 계획을 발표함. 이는 PEMEX의 자체 기술력으로 원유 시추가 가능한 유정(Ronda 0)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Ronda 1)에 대한 공개입찰로, 멕시코 쉘브론사가 참여의사를 밝힘.
- o 멕시코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포괄적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 될 경우, 무디스의 경우 멕시코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3.5%-4.5%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중장기적 경제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시됨.

### 3. 대외거래

#### □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안정적

- o 상품수지, 소득수지와 서비스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교포 송금 등 안정적인 경상이전 수지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1%를 기록한 2013년을 제외하고 1%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 및 증권투자액 등으로 충당 가능한 규모임.
- o 또한, 최근 5년간 미국의 제조업 수입 중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13%로 증가하는 등 대외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음.

#### □ 외채규모 증가로 외채구조 다소 악화

- o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 차입 증가 및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채권 발행 확대 등으로 외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수출 및 GDP 대비 외채잔액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o 다만, 정부의 적극적 외환확보정책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예방책의 일환으로 2014년 11월에는 IMF와 2년간 720억 달러(472.92억 SDR) 규모의 신축적 신용공여(FCL) 차관 연장에 합의하는 등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편인 것으로 분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sup>e</sup>
경 상 수 지	-4,080	-12,769	-15,263	-26,284	-22,029
경 상 수 지 / GDP	-0.4	-1.1	-1.3	-2.1	-1.9
상 품 수 지	-2,943	-1,205	291	-897	2,498
수 출	298,860	350,004	371,442	380,741	425,431
수 입	301,803	351,209	371,151	381,638	422,933
외 환 보 유 액	114,884	137,485	153,473	168,613	188,516
총 외 채 잔 액	248,755	286,467	347,845	400,057	441,040
총 외 채 잔 액 / GDP	23.7	24.5	29.4	31.8	37.9
D . S . R .	14.4	14.8	15.0	15.4	14.1

자료: IMF, EIU 및 IIF.

### III.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제도혁명당(PRI)의 정권 탈환과 과반의석 확보 실패

- 2000년까지 71년간 장기 집권하였던 중도좌파 정당인 제도혁명당이 2012년 7월 실시된 대선에서 자당의 페냐 니에토(Pena Nieto) 후보가 38%의 득표율로 당선됨에 따라 12년 만에 정권 회복에 성공함.
- 의회는 양원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혁명당은 2012년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총선에서 상원 36.3%, 하원 28.1% 득표율에 그쳐 과반의석 확보에는 실패하였음.
- 니에토 대통령은 주요 3당(제도혁명당, 국민행동당, 민주혁명당)과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대규모 반정부 집회로 사회적 불안 확산 및 치안불안 지속

- 2014년 9월 멕시코 서부의 이팔라시에서 시위에 나섰던 교육대 학생 43명이 실종되었던 사건이 경찰과 결탁한 마약깡단에 살해된 것으로 연방검찰 조사 결과 발표되었고, 이팔라 시장 부부가 깡단과 유착혐의를 받아 구속되었음.
- 이에 따라 폭력·항의성 성격의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2014년 11월~12월 중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2014년 12월 니에토 대통령은 부패한 지방경찰 조직을 주 정부 경찰이 대체하는 내용이 담긴 치안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후 대규모 시위는 일단락되었으나,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15년 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의 범죄 관련 지표는 144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등 마약관련 치안불안은 지속되고 있음.

\* 테러리즘 관련 비용(98위), 범죄 및 폭력 관련 비용(135위), 조직범죄(140위) 등

## 3. 국제관계

### □ 대미 관계 강화 및 교역국 관계 확대 모색

- 니에토 정부는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마약밀매 등 치안 문제, 불법이민 문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9월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12개국 간의 다자간 자유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공식가입하고, 2012년 7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멕시코간의 지역통합체인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ifico)\* 결성하는 등 역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태평양동맹: 콜롬비아, 페루, 칠레, 멕시코 4개국이 2012년 결성한 경제블록으로 중남미 전체 GDP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신중한 외채관리 정책 집행

- 멕시코는 2003년에 2019년 만기의 브래디(Brady) 채권을 조기상환하였으며, 2006년에는 정권 교체기에 반복되어 온 경제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06~07년에 기일이 도래하는 정부외채 124억 달러를 조기상환하는 등 신중한 외채관리 정책을 펼쳐 국제금융시장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음.

### 2. 국제시장평가

#### □ 경제개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국제신평사 신용등급 상향 추세

- 2013년 5월 피치는 견고한 경제기반 및 니에토 대통령의 지속적인 경제 개혁 추진 등을 반영하여 멕시코 신용등급을 종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상향조정함.
- S&P도 2013년 12월 에너지 개혁으로 멕시코의 성장 전망과 중기적인 재정적 유연성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며 신용등급을 종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상향조정함.
- 무디스 또한 2014년 2월에 니에토 정부의 구조적 개혁 추진으로 멕시코의 잠재적 경제 성장 및 재정구조 전망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함에 따라 신용등급을 종전 Baa1에서 A3로 상향조정함.
- 반면 OECD는 2009년 7월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관광수입 급감, 미국 경기침체로 인한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 대외 채무의 급격한 증가 등을 반영하여 멕시코의 등급을 종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3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14. 10.)	3등급	(2013. 10.)
S&P	BBB+	(2013. 12.)	BBB	(2009. 12.)
Moody's	A3	(2014. 2.)	Baa1	(2013. 2.)
Fitch	BBB+	(2014. 5.)	BBB+	(2013. 5.)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2. 9. 30 (북한과는 미수교)

□ 교역규모

- 2014년 기준 對 멕시코 수출은 108억 달러, 수입은 33억 달러로, 1988년 이후 對 멕시코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
- 주요 수출품은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철강관 등이며, 수입품은 금속광물, 아연광 및 석유제품임.

□ 해외직접투자(2014년 12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259건, 31억 달러

<표 4> 한·멕시코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9,042,360	9,727,377	10,846,018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철강관
수 입	2,591,566	2,300,742	3,268,495	기타금속광물, 아연광, 석유제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2013년 멕시코 경제는 건설경기 위축 및 제조업 성장률 하락의 영향으로 1.0%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자국통화 약세 및 미국 경제회복에 따른 자동차 부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유가하락 등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및 지속되는 인프라 지출 등으로 재정 적자 기조가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는 세제개혁안을 통해 세수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1%대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임.
- 2012년 12월 취임한 니에토 대통령은 세제, 에너지, 통신 산업 등의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이러한 개혁 경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멕시코 국가등급을 잇따라 상향하였음. 다만, 원유에 대한 높은 세수의존도 및 사회 전반에 만연한 마약 카르텔의 영향력이 멕시코의 구조적 한계로 꼽힘.
-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채권 발행 확대 등으로 외채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외환보유액과 외국인직접투자액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조현수(☎02-6255-5712)

E-mail : hsc@koreaexim.go.kr